

결핵 상담실

Q&A

Q 결핵판정 후 약 복용한지 한 달 보름쯤 됐습니다. 간에 무리가 간다는 설명은 들어서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피로감이 계속 느껴지는 것은 알겠는데 오한, 발열, 수면 중 땀이 많이 나는 등 결핵판정 받을 무렵의 증상이 한 주 전 무렵부터 다시 나타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38~38.5도 사이의 체온이 자주 측정됩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걸까요? 술은 일체 마시지 않는데 흡연은 합니다. 그거랑도 상관이 있나요?

A 폐결핵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도 문의하신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선 결핵약제에 의한 과민반응이나 부작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또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결핵이 악화되고 있는지 흉막염이 새로이 생기는 등 다른 폐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흡연은 직접 관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치료 중에는 꼭 금연하세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흉부 X-선 및 혈액검사 등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만 12살 남아입니다. 미국연수 준비 중 필요하여 투베르쿨린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17mm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 중에 결핵환자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예방치료로 9개월간 약물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약물이 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 또 막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에게 9개월간이나 약물을 투여하기가 부모로서 망설여집니다. 약물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요?

A 결핵 반응검사에서 비교적 강한 양성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흉부 X-선 검사를 하여 이상소견이 없다면 잠복결핵으로 생각되므로 특히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결핵감염 후 실제 결핵으로 발병될 위험률이 약 20% 정도 되고 또한 최근 감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 등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Q 3년 전 활동성 결핵으로 1년 조금 넘게 약을 먹고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결핵이 재발된 건 아닌지 호흡이 약간 가쁠 때가 있고 말을 하는 중에 숨이 차서 기침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선 결과는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판정됐고 객담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핵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결핵을 분명 완치 받았는데 비활동성 결핵이라면 그 사이 결핵균이 침입했다는 건지요? 비활동성 결핵은 평생 발병 안 될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A 폐결핵은 환자의 병 상태나 치료 등에 따라서 재발 여부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치료의 경우 치료를 잘 하였다면 재발률은 2~5% 정도 되며, 치료를 중단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을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것은 새로이 균이 침입한 게 아니라 치료를 종결한 후 폐에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치료종결 후에 처음에는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다가 나중에는 년 1~2회 정도 하시면 되고, 유증상시에는 수시로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Q 11개월 아기인데 9개월간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유수유아인데 아직 밤에도 수시로 깨서 젖을 찾아 물리고 있습니다. 공복상태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밤에도 많지는 않겠지만 내내 젖을 먹고 있어서 약 효과가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공복이라면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 건가요? 밤중수유로 약 효과가 크게 떨어질까요? 아직 아기가 가루약을 물에 타서 먹이는데 다 뱉어냅니다. 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땐 다시 먹여야 하나요? 설탕 같은 걸 타서라도 먹여야 할까요?

A 잠복결핵을 치료하는 결핵예방약 중에 9개월 동안 복용하는 약(아이나)은 굳이 공복이 아니더라도 식후, 즉 수유 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나서 먹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일정한 시간(아침)에 먹이도록 하시고, 약을 먹인 후 즉시 토하면 다시 복용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이상 지나서 토한다면 다시 복용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에는 설탕을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소아과 의사와 다시 잘 상의하셔서 약을 잘 먹이도록 하세요. †